

캠△ 사람들

□ 손짓 사랑회 회장 김진명(건축2)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인터뷰 동안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의 만감이 수없이 교차했다. 이것은 손짓 사랑회 봉사활동중 청각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들과 함께하며 생긴 버릇. '수화'로는 완벽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얼굴표정으로 말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짓사랑회 회장 김진명(건축2)군을 만났다.

자신이 장애인보다 조금은 우월하리라 믿었던 사나이. 그러나 그가 장애인을 만났을때 그들은 그런 그를 넓은 가슴으로 감싸안았다. 그때 그는 정상인의 오만함을 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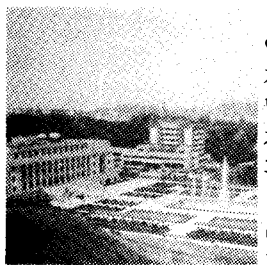
"따지고 보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남들보다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더군요. 눈 나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왜 세상사람들에서 두명이 눈이 하나면 눈이 둘인 사람은 '병신'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보는 일반인의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그는 대뜸 "이제 면역됐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연세대 및 한신대 등에서는 수화가 교양과목이 되었을 정도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추세이므로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본다. 그런만큼 앞으로 학우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류지은기자〉

경희유산시리즈

⑭ 생각하는자 천하를 바꾼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사색(思索)은 『순자』의 '대략'에 나오는 말로 사물의 이치를 따져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랑하다'를 '사랑(愛)'과 '생각(思)'의 두가지 뜻으로 써서

'앎'에 대한 사랑이 곧 '생각'임을 표현하였다.

우리 학교 서울캠퍼스 호텔경영전문대학 앞에는 '생각하는자 천하를 얻는다'는 명구가 있다.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입구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天下를 바로 세운다'가 있다. 그 앞에는 넓은 '사색의 광장'이 펼쳐져 있다.

사색의 광장은 인생의 원리와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 사회관, 시대적 사명 등에 대한 물음을 새겨 놓은 28개의 명제비가 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시작하는 이 의문은 '무제(無題)'에서 '무제(無題)'로 끝나고 있어 앞으로 경희의 역사와 함께 지속될 영원한 추구의 지평을 열어 놓고 있다.

광장은 개방된 장소에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자 상호 의사교환의 장으로서 의미도 있다. 우리는 이 광장에서 학문적 사색가운데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해 나갈으로써 세계를 변혁시켜 '제 2의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시키고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우리 대학의 이상을 달성하는 경희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 일 환 (중암박물관)

□ 낙서로 비춰본 대학생의 의식

익명속에 펼쳐진 상상의 날개

"낙서는 어찌보면 할 일없는 미친인간이

그저 장난삼아 아무데나 길겨쓰는 글인

것 같지만 개인의 잠재적 욕구의 표출을

통해 불만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있는

기능에서부터 사회비판적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길거리나 건물벽에 아

무렇게나 막 쓰여진 낙서라 해서 그저 지

나쳐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 일 순

〈사회학과 교수〉



스트레스와 낙서

그리고 낙서는 인간이 불만이나 정신적 불안정,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글을 씌어서 불만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 및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낙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만이나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높을 가능성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낙서는 앞에서든 본능적 충족성 및 잠재적 욕구의 표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사회적 선동성과 전염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정한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나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및 욕설에 대한 내용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선동적인 영향을 주게됨으로서 동시에 전파 또는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예로서는 특히 독일 히틀러의 나치시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길 때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것을 상기할 수가 있을 것이

매 학기초마다 어지럽게 붙어있는 게시물들(조). 그러나 게시판의 내용물만큼 구석구석마다 대학인의 재치가 번뜩이는 낙서들. '낙서'는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다. 학교 앞 OB일번지 벽에 지저분하게(?) 써져 있는 낙서(위) 만큼이나 습관적이기 때문에 친근함마저 든다.

며,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에 의해서도 많이 쓰여졌으며 우리나라에도 특히 5공 때 학생운동 등에서 이러한 예들을 어느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비판적 성격

그리고 낙서는 또한 사회비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언론과 출판이 통제되기 마련이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주장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표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비판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 표출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건물 벽이나 길거리 등에 낙서와 비슷한 형태로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낙서는 대부분 사람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지저분하고 추하게 만들게 하는 환경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다. 낙서에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라 할수 있다.

이와같은 낙서는 어찌보면 할 일없는 미친인간이 그저 장난삼아 아무데나 길겨쓰는 글인 것 같지만 개인의 잠재적 욕구의 표출을 통해 불만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있는 기능에서부터 사회비판적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길거리나 건물벽에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낙서라 해서 그저 지나쳐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글 청탁을 받고 어제는 학생들 화장실의 칸칸을 모두 돌려 어떤 낙서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우리 학생들 화장실은 너무도 깨끗했다.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낙서의 현주소

억압된 욕망의 표현들

학생들이 빈공간에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할까? 아마 집중광구는 '낙서'라는 것을 할 것이다. 학생들은 노트뒷장, 책, 벽 등 쓸 곳과 필기구만 있으면 자기 생각을 고적한다. 지금의 자기 처지와 비슷한 노래나 무슨 말인줄도 모르는 시적인 표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터부시된 성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빈 공간에서 자유를 꿈꾸는 자들이여 생각해보라. 위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면 이토록 좁은 공간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학우들이여 좁은 공간에서 낙서의 자유를 맘껏 누리라. 'To have or to be. 우리들은 너무나도 돈, 권력, 명예의 소유에 집착한다. 어떤 소유가 앞인 존재를 위해 살 때이다.' 붓 자유로운 표현들의 낙서가 각 단대 화장실마다 가득하다. '분모남이나 친구들에게 감히(?) 말하기 어려운 성에 관한 글도 있다. 친구네 놀러갔는데 친구 '누나'가 나를 유혹했다.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낙서의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욕망의 표현중 하나이다.

이러한 낙서문화에 대해 권영택(영문)교수는 "나도 6·70년대에 수많은 낙서를 했다. 주로 심심하고 혼자 있을때 노트뒷장에 낙서를 한다"며 "이러한 낙서는 인간본능 가운데 하나이고 무의식중에 개인정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앞에 많은 술집이나 화장실을 들어가보면 벽에 낙서투성이다. 자기 학과나 동아리 자랑부터 시작해서 연인들의 은밀한 속삭임, 사회비판 등 다양한 글들이 보인다. 술집 벽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낙서의 공간을 주고 있는 OB일번지 하숙 아저씨는 "낙서에 깊이가 없어졌다. 옛날에는 많은 생각속에 깊은 의미가 담긴 낙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변질된것 같다."며 "낙서를 할때 즉흥적이 아닌 많은 생각들이 담겨졌으면 한다."고 웃으며 말한다.

대학생들의 낙서문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대속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대는 계속 변화하지만 낙서로 표현된 학생들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동희기자〉

동아리 단신

한기연 신학강좌 서울캠퍼스 개신교 동아리 한기연이 오는 30일과 다음달 7일 이틀간 신학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 30일에는 '신구약 배경사'를 10월 7일에는 '성경 형성사'를 주제로 강의를 열게된다. 김경호(강남향원교회)목사가 강의를 시작하고 저녁6시에는 한기연 동아리방에서 강의를 시작된다.

경희극장 공연 '정' 서울캠퍼스 연극동아리 경희극장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박성일(철학3)연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54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의 작품명은 '정'으로 일제시대와 70년대의 양시대를 통한 민족 수탈의 역사물을 조형한다. 이번 공연은 다음달 3일까지 오후 6시에 4일은 오후 1시와 5시30분에 시작한다. 장소는 복지회관 1층 공연장이다.

가져있는 내일 함께하는 삼양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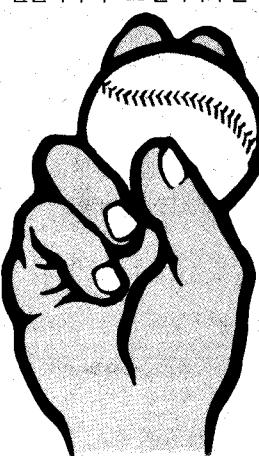
제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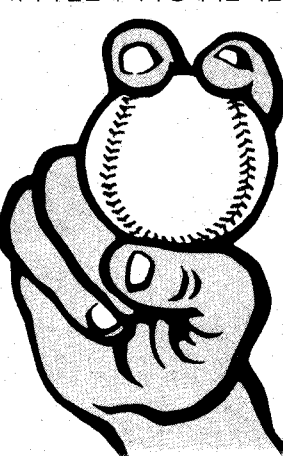
직구
가장 기본적인 구질로 무조건 빠르고 직구보다는 스트라이크존의 네 구석을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템포 느리지만
남들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체인지업
직구와 인지는 동적은 같으나 속도가 12~18km정도 느려 타자의 타이밍을 헛어 준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슬라이더
직구처럼 보이기도 타자 앞에서 갑자기 기러 않아 방심함을 유도하므로 구원투수에 좋은 구질이다

문제가 부딪혔던 언제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커브볼
홀 플라이트 전방 약 60cm에서 바깥 아래쪽으로 휘어 타이밍을 헛는 현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끔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너클볼
속도 75~80km 정도에 회전이 전혀 없어 타자나 포수는 물론 단지는 투수까지도 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신비의 구질이다.



삼양그룹

● 삼양사(化驗, 製藥, 飼料, 化成, 環境, 醫藥) ● 삼양중기 ● 삼양제넥스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 신한제분 ● 삼양종합금융 ● 삼양메디케어 ● S/텍스타일 ● 삼양텍스 ●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텔레콤 ● 삼양파이낸스 ● 다원실업파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희 ● 수당정형희